

까마귀 백번 분칠한들 백로가 되라

— 적외본당의 당명개정놀음을 두고 —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또 당명을 바꾸었다고 한다. 새 당명은 피이하게도 《국민의힘》이라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 의해서 력대로 라도되어온것이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들이 아닌가. 그 라도대상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뽀뽀스럽게 당간판에 내걸었다. 그러면서 새 당명의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자기 당의 힘이 인민들로부터 나온다는것인데 가을베꾸기같은 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배척을 받고 사망적인에 이른 《국민의힘》이다. 지지가 있어야 힘도 생기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사회의 한측인 진보세력에게 발도 못 붙이고있는 형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중도세력도 《국민의힘》편이 아니라 말그대로 중도세력이다. 이 중도세력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아 지난 4월선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제법 해석까지 달아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해석인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거에서 취찬한 폐배를 당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그런대로 의지하고있는것이 전통적인 보수지만인데 그것은 보잘것없는 세력이다. 실상은 이러한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자화자찬하였으니 삶은 소대가 리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국민의힘》과 그의 력대 조상들은 언제나

부패보수의 상징이었던 인민들을 대표해본적이 없다. 《자유당》의 명칭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때로부터 오늘의 《국민의힘》에 이르러까지 이 당의 흥락은 력사에 하나로 판명되는것은 인민들이 배척하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독재와 부패이다. 당의 체질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인물도 그 인맥인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운운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언어도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늘고 기력이 다 빠진 부패보수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해야 정확할것이다. 이 당의 뇌리에는 남조선인민들이 개나 돼지로 각인되어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달라는 인민들에게 최후란을 무차별 퍼부었고 때로는 끈봉으로 내려치고 때로는 계엄군의 사적과녁으로 삼았다. 광주대학살과 그후의 사태들이 보여주듯 이 당의 력대

의 대중적지향을 외면하고 시대발전의 흐름에 역행해서 《보수꼴통》, 《수구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다. 이런 부패한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힘을 행사하겠다는것은 언어의 회롱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겠다는것이 속에 품은 진짜생각일것이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르는 사람이 없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간다고 한생토록 싸움질만 하고 사람들을 리간시켜며 살아왔는데 이제 철이 들어 인민들을 통합한다? 어찌구없는 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속이려고 당의 간판에 《통합》을 내걸었다가 민심의 예리한 눈초리에 사형선고를 받고 내리웠는데 또 《통합》을 운운하며 인민들을 우롱기만하고있다. 보는것처럼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기만이다. 그에 속히울 사람이 과연 남조선에 있었는지.

민심의 눈을 언제나 정확하며 민심은 위선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인민들을 또다시 속여보려고 《국민의힘》이라는 병거지를 썼지만 총당에는 분노한 인민의 드세찬 힘에 의해 최후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의 평가이다. 당명을 아무리 바꾸어도 이미 기울어진 부패보수집단의 운명을 구원할수는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실용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을 끌어당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련일 현 당국의 잘못된 쪽수를 지지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대표의 견해를 저들과 같다느니, 《국민의당》과 언제나 같이 갈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것만큼 이제 그들의 결집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희유하고있다고 한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그러나 하던 《국민의힘》 주요인물들속에서는 《안철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국민의당은 반문재인연합대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대표를 다음에 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내세울수 있다고 추파를 던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당》은 변화하고있는 《국민의힘》과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권연대》를 공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고히 하면서 야권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추파를 던지고있다. 다리부러진 노루 한쌍에 모인다고 이미 민심의 심판을 받고 공진동화의 신세에 물러있는 주제에 그 무슨 《연대》를 운운하며 설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권력싸움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루던 《국민의당》

과 《국민의당》이 보수야권연대를 운운하는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계산이 놓여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을 끌어당겨 보수야권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대를 실현함으로써 저들의 몸집을 불구자는데 그 흥심이 있었다면 《국민의당》으로서 는 제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기대어 운명의 막바지에 이른 저들의 처지를 개선해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는것이다. 가관은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 보수야권연대를 운운하고있지만 속

중량은 따로따로 하고있는것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4월 선거를 계기로 보수통합을 떠들면서 《국민의당》 계열의 여러 인물들을 끌어당겨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놓고 제불장만 다 보고 종당에는 가치없이 차버린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일단 《정권탈취》의 도구로 리용하다가 필요없으면 《토사구팽》 하겠다는것이 《국민의당》의 본심이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계에서 《국민의당》과 연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행태를 두고 《호박쓰고 돼지우리 들어가는 격》이라고 하

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권력을 쫓아 정치판에 뛰어들어 이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박권인생》을 살아온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야권연대에 머리를 기웃거리려는것은 권력의 뺨부스레기라도 얻어먹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있기때문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계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놀음을 두고 《정치야심가들의 동상이몽》이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심이 요구하는 쪽이 아닌 권력만 쫓아 제 리속만 차려려 하는 이런 보수야당에 민심의 싸늘한 눈초리가 따르는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변신하여 생겨난 《국민의힘》 내부에서 쿠우보수멸거지들과의 관계문제를 놓고 저마다 욕을 신갈고있고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우두머리들은 《과거와의 단절》이 없이는 《당혁신》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관과 리명박구속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쿠우보수세력과의 《결별》, 당내 경경보수파들에 대한 《정리》로 저들이 《새롭게 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력설해했다고 한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이렇게 되자 박근혜, 리명박파들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버려서는 안된다》, 《뿌리가 없는자들이 당에 들어온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어 당내가 혼동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론들은 《쿠우보수와의 《결별》은 언어도단》, 《또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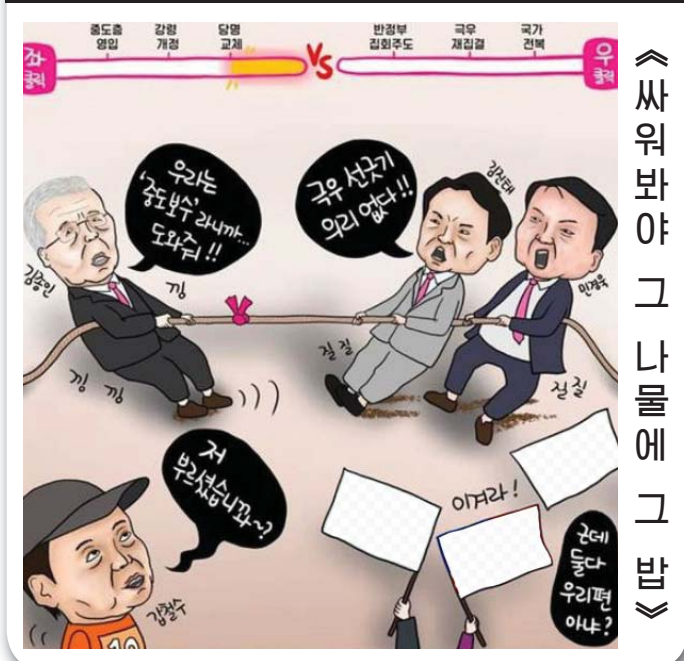
대국민사과》이라며 한결같이 야우조소하고있다. 그럴만도 없다. 사실 명칭이나 다른뿐이지 《국민의힘》것들이나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와 같은 쿠우보수팔통들은 다 뭉개야 뭉수 없는 한몸통이나 다름없다는것이 세간의 평이다. 지난해 보수꼴통들 다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려놓은 《범국민집회》들과 각종 시위들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층인물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온갖 폭언을 늘어놓은 사실, 명색이 대표라느자가 《골목강대동맹》이 되어 보수꼴통부대들의 앞장에서 《국회》청사를 점거하고 폭행과 악설을 서슴지 않은것은 이것들이 갈데 없는 한몸통이라느것을 여실히 립증해 주고있다.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더구나 최근 남조선에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을 확산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쿠우보수꼴통들이 벌려놓은 《태극기집회》에 《국민의힘》의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현직의원이라는자들이 줄줄이 찾아들어 마이크를 잡고 고성을 질러댄다. 인종사건까지 찍는다 하며 놀이댄 낫뜨거운 추태들은 쿠우보수와 《국민의

힘》패거리들과의 밀착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것들이 갑자기 아무관계도 없는듯이 아닌보살하며 쿠우보수팔통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법석 고아대고있으니 그 속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배척을 받고있는 쿠우보수팔통들과 《결별》이라는 사기극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어떻게 하나 제정권야망을 이루어보자는것이 《국민의힘》의 진짜 속심일것이다. 설사 어제날의 동반자라 해도 권력추구에 지장이 된다면 원수가 되어 등에 칼을 박는것도 서슴지 않는것이 정치야심가, 음모가, 배신자들의 집합체인 《국민의힘》것들의 너절한 실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패거리들의 낫뜨거운 추태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정치추물, 정치오물들이 모여있는 고안해내고있는 민심기만의 광대극들은 혹 배아들어 마이크를 잡고 고성을 질러댄다. 인종사건까지 찍는다 하며 놀이댄 낫뜨거운 추태들은 쿠우보수와 《국민의

남조선 출몰물에 실린 만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청원글을 소개

지난 3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신문》가 《이름 바꾸자마자 해산청원 등장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였다. 글은 《국민의힘》이 당명개정을 확정하자마자 해산청원글이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글은 《방역방해 범죄집단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근 전염병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광훈목사 등 적폐세력의 8.15집회에 대해 지적하면서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지금까지 키운것은 《국민의힘》이라고 까뽀했다. 계속하여 방역대책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주요발언들을 련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망발을 통해 전염병확산을 일으킨 전광훈세력을 대놓고 두둔하는 한편 《참가하고싶은 당원은 자유롭게 참가하라》고 하는 등 집회참여를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현재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글은 많은 동의를 얻어 검토중이며 방역방해범죄를 목인, 방조, 동조한 《국민의힘》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이렇게 되자 박근혜, 리명박파들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버려서는 안된다》, 《뿌리가 없는자들이 당에 들어온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어 당내가 혼동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론들은 《쿠우보수와의 《결별》은 언어도단》, 《또 하나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겐 아무것도 안고있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최악의 우에 최를 덧씌우는 나라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아이찌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한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8월에도 도쿄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낸 소송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중교육발달책동을 비호두둔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로 말하면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후과로 생겨난 사람들로 일본당국에게서 마땅히 이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일본당국은 2010년 4월 재일조선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일본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의 고등학교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의외적으로 제외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201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당국은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가나가와현과 사이타마현 등 지방자치체에서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키도록 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도록 각 도, 도, 부, 현들에 통지하는것을 보내어 조선학교차별조치가 계속 실시되게 하였다. 2019년에는 조선학교 유치반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까지 배제하였다. 총련의 민족교육의 기반을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갖은 모략과 책동으로 제일동포들과 그 자신들이 입고있는 피해와 고통은 매우 크다. 지금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제일동포들이 도처에서 일본당국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문화제는 단순히 당대 시기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인것이 아니라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고유한 민족성의 상징이며 문화의 발전과 정신도덕생활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문화제는 학술자로서뿐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후세에 전해주고 계승을 담보해주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그러나 일제는 수십년간의 조선강점기간 조선민족의 넋과 재능이 갖는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도적으로 로략질해가는 천추를 두고 었지 못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벌서 고적유물탐험가 세기노를 두목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여 전조선령토에 있는 민족유산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문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5권에 달하는 《조선고적도보》를 작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의 문화재들을 강도적으로 로략질해갔다. 일제강점시기 조선의 민족문화재파괴를 적극 부추기고 그에 앞장선자가 바로 조선침략의 원흉인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는 당시 황덕궁, 경복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궁, 덕수궁 등에 보존되어 내려오던 수많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들을 빼내어 왜왕과 왕족, 귀족들에게 선물로 넘겨버치었다. 그리고는 조선의 문화유물들을 《조선》, 《수집》,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헌병, 경찰들은 물론 온갖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왕릉들을 무차별적으로 도굴하고 문화재들을 마구 약탈하도록 하였다. 도쿄 우에노박물관에는 당시 이토가 약탈해간 조선의 문화재들이 전시되어있는데 그 수는 수백점에 달하고있다. 일제의 조선민족문화재파괴책동은 조선총독 테라우찌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이자는 마치 조선의 민족문화 《보존》이라고 하려는데 뜻이 가장하면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등 허술좋은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물보존》이라는 이름밑에 조선의 민족문화유산들을 닦치는대로 약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테라우찌는 1915년에 이른바 《시정5주년 공진회》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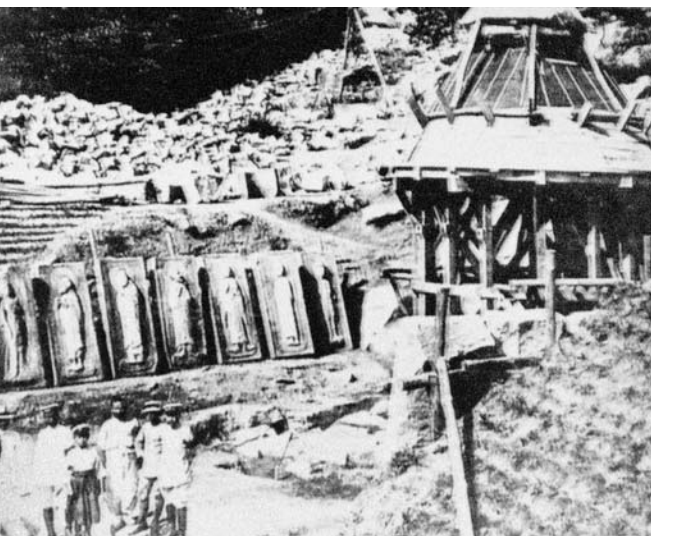
라는것을 벌려놓고 가치있는 문화유물들을 출몰하는사람들에게 《후한 보상》을 준다고 허튼수작을 늘어놓는 한편 경찰들을 동원하여 조선사람들의 가정까지 수색하여 진귀한 문화유물들을 거두어들였으며 《공진회》가 끝난 뒤에는 그것들을 《연구자료》로 리용한다는 구실밑에 빼앗아갔다. 일제가 이렇게 빼앗아간 문화재는 무려 수만점이나 되었다. 특히 이자는 조선봉건왕조의 력대 왕궁인 경복궁안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헐어 자기 고향인 야마구찌에 가져다 그대로 다시 짓고는 《조선관》이라는 간판까지 달아놓았다. 이 《조선관》에는 신라시대 조각의 결구법으로 잘 알려진 석굴암안에 세워놓았던 2개의 석불상(돌부처)과 개성부근의 고려시대 옛 무덤에서 몰래 파낸 수많은 도자기들과 장신구들, 불상 등 가지가지의 이름난 보물들과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다. 일제강점시기 조선에 와서 살았던 일본인들치고 몇점의 자기나 유물을 가지고있지 않은자가 없다싶이 되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거기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버젓이 락탈해간것을 넘두두면 조선의 문화유물들에 대한 일제의 락탈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다. 지금도 일본에는 조선민족의 수많은 유물들이 박물관이나 전시대 등에 비치되어 있다. 오죽하면 일본사람들까지도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미를 찬양하고 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인가. 그중에서도 《국보》중의 《국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라도 실로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닌가. 이는 력사들도 립증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라고 고백하였는가. 참으로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문화재락탈만행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다. 김리화



일제에 의해 해체 락탈당한 석굴암